

11. 높임

학습 목표

- 높임법의 종류를 이해한다.
- 주체 높임법의 특성을 이해한다.
- 상대 높임법의 등급과 특성을 이해한다.

주요 용어

높임법

주체 높임법

상대 높임법

객체 높임법

한국어는 높임법이 풍부하게 발달되어 있으며, 높임의 어휘와 문법 형태소인 선어말어미, 종결어미, 조사에 의해서 높임의 의미가 표현된다. 높임법은 ‘경어법(敬語法)’, ‘대우법(待遇法)’, ‘존대법(尊待法)’ 등 여러 가지 명칭으로 불린다.

높임법은 높이는 대상에 따라 주어를 높이는 주체 높임법과 청자를 높이는 상대 높임법(또는 청자 높임법)으로 구분되는데, 이들은 모두 문법형태소에 의해서 나타난다. 이밖에 특수한 어휘를 사용하여 목적어나 부사어로 나타나는 대상을 높이기도 한다.

1. 주체 높임법

주체 높임법은 한 문장의 주어를 높이는 방법으로, 주체높임 선어말어미 ‘-시-’에 의해서 실현된다. 이때에는 주어에 높임의 조사 ‘께서’나 접미사 ‘-님’이 결합하기도 한다.

선생님께서서 나를 부르신다.

■ 주체 높임법의 특징

① 화자는 자신을 높일 수 없기 때문에 일인칭 주어는 주체 높임의 대상이 되지 못한다.

*{나는, 우리는} 국립중앙 박물관에 가셨습니다.

② 높임의 대상뿐만 아니라 대상의 신체부분이나 소유물을 높일 때도 ‘-시-’를 사용한다. 이를 간접 높임이라 한다.

할아버지께서는 예쁜 모자가 많으시다.
어머니께서는 손이 매우 작으시다.

③ 듣는 사람이 주어보다 더 높을 경우에는 ‘-시-’를 쓰지 않기도 한다. 이를 압존법(壓尊法)이라 부른다. 최근에는 듣는 사람에 상관없이 주어와 화자보다 상위자이면 높임법을 사용한다.

할머니, 어머니께서 집에 아직 안 오셨습니다.
할머니, 어머니가 집에 아직 안 왔습니다. <압존법>

④ 사실을 알려주는 객관적인 글에서는 주체 높임법을 사용하지 않는다.

이순신은 노량 해전에서 전사했다.
홍길동 장관이 미국을 방문했다.

⑤ 주체높임법은 ‘계시다, 주무시다, 편찮으시다’와 같은 특수한 어휘를 사용하여 표현하기도 한다.

교수님은 지금 연구실에 {계십니다, *있으십니다}.
할아버지께서는 항상 낮잠을 {주무신다, *자신다}.

사모님께서서는 많이 {편찮으십니다, *아프십니다.}
할머니께서는 요즘 죽을 {잡수신다, *먹으신다.}

2. 상대 높임법

상대 높임법은 화자가 청자를 높이는 방법으로, 다양한 종결어미에 의해서 표현된다. 한국어의 상대 높임법은 6등급인데, 격식체인 합쇼체(하십시오체), 하오체, 하계체, 해라체 4등급과 비격식체인 해요체, 해체(반말체) 2등급이 있다. 이들은 모두 ‘하다’의 명령형에서 이름을 따서 부른 것이다.

이외에도 높임과 낮춤의 뜻이 없는 ‘하라체’를 설정하기도 한다. ‘하라체’는 신문, 잡지 등의 글에서 일반 독자를 대상으로도 사용된다.

■ 한국어 높임법의 등급

높임등급	격식체	비격식체
아주높임	합쇼체	해요체
예사높임	하오체	
예사낮춤	하계체	해체
아주낮춤	해라체	

(가) 하십시오체

청자를 가장 공손하게 대우하는 높임법이다. 현대 한국어에서는 ‘합쇼’가 잘 쓰이지 않기 때문에 ‘하십시오체’라고 부르기도 한다.

■ 합십시오체를 나타내는 종결어미

문장 유형	종결어미	예문
평서문	-ㅂ/습니다	아침에는 밥 대신 빵을 먹습니다.
의문문	-ㅂ/습니까	선생님께서서는 오늘 아침에 뉴스를 보셨습니까?
명령문	-십시오	잠시 여기서 기다리십시오.
청유문	-십시다	모두 함께 가십시다.

■ 합십시오체의 특징

① 상위자에게 명령과 청유는 자연스럽게 않기 때문에 합십시오체에서의 명령과 청유는 권유의 ‘-시지요’로 바꾸어 표현한다.

선생님, 7시에 학교 앞으로 {오십시오, 오시지요}.
선생님, 저희들과 함께 {가십시다, 가시지요}.

② 합십시오체는 주로 일반 청중을 대상으로 하는 연설, 강연, 뉴스 보도 등에서 쓰인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아홉 시 뉴스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나) 하오체

청자가 화자보다 아랫사람이거나 나이가 비슷한 경우에 청자를 약간 높여서 대우하는 높임법이다.

■ 하오체를 나타내는 종결어미

문장 유형	종결어미	예문
평서문	-오	무엇보다 건강은 지키는 것이 중요하오.
의문문	-오	정말 학교를 그만두려는 것이오?
명령문	-오	내가 말한 대로 실행하시오.
청유문	-하시다	오늘밤 함께 심야영화를 봅시다.

■ 하오체의 특징

- ① 하오체는 화자와 청자가 어느 정도 나이가 들어야 쓸 수 있는 표현이며, 현대 한국어에서는 활발하게 쓰이지 않는다. 이는 해요체가 하오체의 역할을 대신하고 있기 때문이다.
- ② 하오체는 남성 화자들보다 여성 화자들이 더 많이 사용하는데, 이때는 '-오'가 아니라 '-우'를 사용한다.

언니, 나 먼저 가우.

(다) 하계체

청자가 화자보다 아랫사람이거나 나이가 비슷한 경우에 청자를 약간 낮춰서 대우하는 높임법이다.

■ 하계체를 나타내는 종결어미

문장 유형	종결어미	예문
평서문	-네	나는 지금 강의실에 가네.
의문문	-나	이 일 좀 도와주겠나?
	-는가	지금 학교에 오는가?
명령문	-게	전에 말 했던 그 책 좀 빌려 주게.
청유문	-세	서울 축제나 구경하러 가세.

■ 하계체의 특징

하계체는 청자가 아랫사람이지만 나이가 들었기 때문에 함부로 대하기 어렵다는 태도를 보일 때 사용된다. 하계체도 하오체와 같이 현대 한국어에서는 활발하게 쓰이지 않는다.

(라) 해라체

격식체 중에서 청자를 가장 낮추어 대우하는 높임법이다. 청자의 나이가 어리거나 친한 사이일 때, 신분상으로 높일 필요가 없을 때 사용된다.

■ 해라체를 나타내는 종결어미

문장 유형	종결어미	예문
평서문	-니/는다	저기 충무로 가는 버스가 온다.
의문문	-느냐	교실에 누가 있느냐?
	-니	교실에 누가 있니?
명령문	-아/어라	너는 집에 빨리 가라.
청유문	-자	오늘은 새로운 내용을 공부하자.

■ 해라체의 특징

글에서 쓰이는 해라체 형식은 의문문에서 ‘-니까’가 사용되고, 명령문에서 ‘-라’가 사용되어서 구어(口語)와 차이를 보인다.

인생에서 무엇이 가장 중요한가?
 보기의 설명을 읽고 물음에 알맞은 답을 쓰라.

(바) 해체

비격식의 낮춤 표현이며 ‘반말체’라고도 한다. 해체는 대화자들 사이에 거리가 없거나 개인적으로 친분이 있을 때 사용된다. 격식체인 하계체와 해라체를 대신하여 현대 한국어에서 활발하게 사용된다.

■ 해체를 나타내는 종결어미

문장 유형	종결어미	예문
평서문	-아/어	나는 지금 소설책을 읽어.
	-지	나도 참석하지.
의문문	-아/어	뭐가 그리 우스워?
	-지	그 친구는 언제 오지?
명령문	-아/어	음식이 식기 전에 빨리 먹어.
	-지	빨리 차에 타지.
청유문	-아/어	우리 이 책을 함께 읽어.
	-지	우리 그만 가지.

■ 해체의 특징

종결어미 ‘-아/어’와 ‘-지’가 평서문, 의문문, 명령문, 청유문에 모두 사용된다.

(바) 해요체

비격식의 높임 표현이며, 합쇼체와 하오체를 대신하여 현대 한국어에서 활발하게 쓰인다. 해요체는 해체의 어미에 높임의 보조사 ‘요’를 붙여서 표현한다.

■ 해요체의 특징

① 해요체는 윗사람뿐만 아니라 아랫사람을 높이고자 할 경우에도 쓰이므로, 현대 한국어에서 상대를 높일 때 가장 많이 쓰이는 높임법이다.

어머니, 오늘 학교에서 동아리 모임이 {있습니다, 있어요}.

김 대리, 이것 좀 {처리해 줘, 처리해 줘요}.

② 해요체는 회사 면접이나 방송 뉴스와 같이 격식을 차리는 자리나 공식적인 자리에서는 쓰일 수 없다. 이때에는 합쇼체만 사용할 수 있다.

(회사 면접)

앞으로 이 회사에 입사하면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일하겠습니다}.

(방송 뉴스)

지금부터 오늘의 주요 뉴스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3. 객체 높임법

한국어는 문법 요소를 사용하는 것 이외에 특수한 어휘를 사용하여 높임을 나타낸다. 이때에는 높임의 명사가 사용되거나 목적어와 부사어로 나타나는 대상을 높이는 동사가 사용된다.

① 높임의 명사

‘밥-진지, 집-댁, 생일-생신, 나이-연세, 이름-성함’ 등이 있다.

아버님, 진지 잡수세요.

이번 방학에는 할머니 댁을 방문할 계획이야.

너는 아버지 생신 때 주로 무엇을 선물하니?

그분은 연세가 어떻게 되셨지?

② 목적어와 부사어를 높이는 동사

‘여쭙다, 모시다, 뵙다, 드리다’ 등이 있다.

철수는 선생님께 시험범위를 여쭙지 않았다.

아버지는 할머니를 모시고 병원에 가셨다.

말씀으로만 듣던 분을 뵙게 되어 정말 기쁩니다.

철수는 부모님께 결혼기념일 선물을 드렸다.

1. 다음에서 '하계체'가 쓰인 것을 고르시오.

- ① 지금 여기에 오는 중인가?
- ② 선생님께서는 어디에 가셨습니까?
- ③ 이 일을 그만두려는 것이오?
- ④ 저에게 책을 빌려줄 수 있어요?

2. 다음에서 목적어를 높이는 것을 고르시오.

- ① 교수님께서서는 지금 강의 준비를 위해서 연구실에 계십니다.
- ② 올해는 부모님을 모시고 제주도에 가자.
- ③ 관계자들은 모두 그 사건에 대한 입장을 표명했다.
- ④ 할아버지께서는 소설책 읽는 것을 좋아하신다.

3. 아래의 문장에서 높임법이 잘못된 부분을 찾아 고치시오.

- ㉠ 선생님께서 너 빨리 오시래.
- ㉡ 다른 의견 계신 분은 없으십니까?
- ㉢ 그 옷은 오천 원이십니다.
- ㉣ 할아버지, 형님은 언제 들어오십니까?

12. 부정

학습 목표

- 부정문의 일반적인 특징을 이해한다.
- ‘안’ 부정문의 특징을 이해한다.
- ‘못’ 부정문의 특징을 이해한다.
- ‘말다’ 부정문의 특징을 이해한다.
- ‘없다, 모르다’ 부정문의 특징을 이해한다.
- 장형부정문과 단형부정문의 차이를 이해한다.
- 이중부정문의 특징을 이해한다.

주요 용어

부정문

‘안’ 부정문

‘못’ 부정문

‘말다’ 부정문

‘없다, 모르다’ 부정문

장형부정문

단형부정문

이중부정문

한국어에서는 긍정문에 부사 ‘아니(안), 못’이나 용언 ‘아니다, 않다, 못하다, 말다’를 사용하여 부정문(否定文)을 만든다. 한국어의 부정문은 부정어의 종류에 따라서 ‘안’ 부정문, ‘못’ 부정문, ‘말다’ 부정문으로 나뉘며, 부사 ‘안, 못’을 서술어 앞에 쓰는 단형 부정문과 서술어 어간에 ‘-지’를 붙이고 ‘않다, 못하다, 말다’를 더하는 장형 부정문으로 나뉜다.

■ 부정문의 일반적 특징

① 일반적으로 부정문은 부정극어(否定極語, negative polarity item)와 어울릴 수 있다. 부정극어 ‘전혀, 절대로, 조금도, 아무도’ 등은 긍정문에는 어울리지 않고 부정문에만 어울리는 단어들을 말한다.

이 과장은 그 일에 **절대로** 성공하지 못할 것이다.
아무도 그 친구를 좋아하지 않습니다.

② 부정문은 문장의 어떤 성분에 초점이 놓이느냐에 따라 부정의 대상이 바뀌면서 다양하게 해석된다. 부정 요소의 의미가 미치는 성분의 범위를 ‘부정의 범위’라고 한다.

철수는 영희에게 전화하지 않았다.

부정 대상	의미 해석
철수	영희에게 전화한 것은 철수가 아닌 다른 사람이다.
영희	철수는 영희가 아닌 다른 사람에게 전화했다.
전화하다	철수는 영희에게 전화한 것이 아니라 직접 만나서 이야기 했다.

1. ‘안’ 부정문

‘안’ 부정은 ‘이다’ 대신에 ‘아니다’를 쓰거나 부사 ‘안’이나 문법적 언어인 ‘-지 않다’를 써서 나타내며, 단순 부정이나 의도 부정에 쓰인다.

저 학생은 모범생이다.
 저 학생은 모범생이 아니다.

오늘은 눈이 안 내린다. <단형 부정, 단순 부정>
 오늘은 눈이 내리지 않는다. <장형 부정, 단순 부정>

나는 어제 영어 학원에 안 갔다. <단형 부정, 의도 부정>
 나는 어제 영어 학원에 가지 않았다. <장형 부정, 의도 부정>

■ ‘안’ 부정문의 특징

① ‘안’은 화자의 인지(認知)를 나타내는 ‘알다, 지각하다’ 등의 동사를 부정하지 못한다.

*학생들은 선생님이 하는 말을 안 알았다.
*남자는 자신이 하고 있는 말을 안 지각했다.

② 대조적으로 쓰이는 상황에서는 ‘안’의 의도성이 부각된다.

논문을 안 쓰는 거니, 못 쓰는 거니?

③ ‘안’은 사람의 능력을 필요로 하는 행위의 서술어에는 쓰이지 못한다.

*어떻게 조금도 안 견디고 포기하느냐?

2. ‘못’ 부정문

‘못’ 부정은 부사 ‘못’이나 문법적 연어인 ‘-지 못하다’를 써서 나타내며, 능력 부정이나 타의(他意)에 의해서 어떤 행위를 할 수 없다는 타의 부정에 쓰인다.

■ ‘못’ 부정문의 특징

① ‘못’ 부정은 의도를 표현하는 문장에 쓰이지 못한다.

*나는 내일 그녀를 못 만나려고/만나고자 한다.
*나는 내일 그녀를 만나려고/만나고자 하지 못한다.

② ‘못’ 부정은 일반적으로 형용사 서술어에는 사용하지 못한다. 그러나 어떤 기준에 이르지 못함을 나타낼 때에는 장형 부정으로 형용사 서술어에 쓰일 수 있다.

*그녀는 못 아름답다
*사과가 빨갱지 못하다.

이 생선은 신선하지 못하다. <형용사 서술어에 사용>
꽃이 피기에는 날씨가 따뜻하지 못하다. <형용사 서술어에 사용>

3. ‘말다’ 부정문

‘말다’ 부정문은 문법적 연어인 ‘-지 말다’로 나타난다. ‘안, 못’ 부정문은 평서문과 의문문의 부정에 사용되지만, ‘말다’ 부정문은 명령문과 청유문의 부정에 사용된다. ‘말다’ 부정문은 단형 부정문이 없고 장형 부정문만 있다.

■ ‘말다’ 부정문의 특징

① ‘말다’ 부정은 명령문과 청유문에만 가능하기 때문에 형용사나 ‘체언+이다’의 부정에는 사용될 수 없다. 형용사에 ‘말다’가 사용되면 기원(祈願)의 뜻을 나타낸다.

*영희의 얼굴은 아름답지 마라(말-+-아라).
*너의 마음은 착하지 마라.
*너는 좋은 학생이지 마라.

제발 날씨가 나쁘지 마라. <기원>

② ‘바라다, 원하다, 기대하다’ 등 바람을 나타내는 동사가 서술어이면 명령문이나 청유문이 아니어도 ‘말다’가 쓰일 수 있다. 그러나 이때에는 ‘-지 않다’를 사용하는 것이 자연스럽다.

학생들은 선생님이 교실에 들르지 {말기를, 않기를} 원했다.
우리의 사랑이 영원히 변하지 {말기를, 않기를} 바란다.

③ ‘-었-’, ‘-겠-’ 등의 시제 선어말어미가 서술어에 결합되어 있으면 ‘-지 말다’를 사용할 수 없다.

앞으로 그곳에 가지 마라.
*앞으로 그곳에 갔지 마라.
*앞으로 그곳에 가겠지 마라.

④ ‘말다’ 부정은 동사와 반복 구성을 이루어 관용구를 만들기도 한다.

그가 전화를 하든지 말든지 신경 쓰지 않는다.
철수는 취업 실패 후에 고향으로 돌아갈까 말까 고민하였다.

4. ‘없다, 모르다’ 부정문

‘없다’는 ‘안 있다’, ‘있지 않다’ 대신에 사용되며, ‘모르다’는 ‘못 알다’ 대신 사용되는데, 모두 부정극어와 어울린다는 특징이 있다.

내가 어릴 적에 우리 집에는 텔레비전이 {없었다, *안 있었다, *있지 않았다}.
나는 그 문제에 대한 답을 {모른다, *안 안다, *알지 않는다, *못 안다}.
나는 그 사실을 전혀 모른다.

5. 장형 부정문과 단형 부정문의 차이

① 단형 부정문은 장형 부정문에 비해서 제약이 많다. 서술어가 파생어나 합성어인 경우에는 단형 부정이 되지 않는 경우가 있다.

*그 학생은 안 슬기롭다.	<파생어>
*하늘이 안 새파랗다.	<파생어>
*머느리는 시택에 안 오갔다.	<합성어>
*그 향수는 안 값싸다.	<합성어>

② 단형 부정의 '안, 못'은 뒤의 서술어와 결합하여 하나의 단어가 되기도 한다.

그 여자는 정말 못생겼다.
오래 사귀 여자 친구와 헤어지다니 그것참 안됐다.

③ 장형 부정문에서 시제 선어말어미는 '-지 않다'에 나타나며, 주체 높임 선어말어미는 선행 서술어나 '-지 않다'에 모두 나타날 수 있다.

민주는 춤을 추지 않았다.
*민주는 춤을 찮지 않다.

사장님은 아직 출근하시지 않았다.
사장님은 아직 출근하지 않으셨다.
사장님은 아직 출근하시지 않으셨다.

6. 이중 부정문

이중 부정은 한 문장에 부정 표현이 두 번 이상 쓰인 것을 말한다. 이때에는 부정의 의미가 아닌 강한 긍정의 의미를 나타낸다.

이번에 그는 공무원 시험에 합격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이번에 그는 공무원 시험에 반드시 합격해야 한다.

초롱이는 순대국을 먹지 못하지는 않는다.
*초롱이는 순대국을 못 먹지 못했다.
*초롱이는 순대국을 안 먹지 못했다.

1. 다음에서 '안' 부정문이 쓰일 수 없는 것을 고르시오.

- ① 민아의 새 가방은 예뻐요.
- ② 학생들이 모두 왔어요.
- ③ 선생님께서는 민수를 장학생으로 추천하셨어.
- ④ 저는 그 순간 스승님의 말씀을 깨달았습니다.

2. 다음 문장들을 부정문으로 바꾸시오.

- | |
|---|
| ㉠ 철수는 대학생이다.
㉡ 철수야, 오늘 국어학 공부했니?
㉢ 철수야, 오늘은 운동해라. |
|---|

3. 아래의 문장에서 알 수 있는 부정문의 특징을 설명하시오.

- | |
|---|
| ㉠ 그녀는 {*안 학생답다. / 학생답지 않다.}
㉡ 저 옷은 {*안 새빨갳다. / 새빨갳지 않다.}
㉢ 어제는 {*안 공부했다. / 공부하지 않았다.} |
|---|